

2008년 12월 2일 화 말씀

호주는 선교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려면 문화수준이 높아 깨우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호주는 깨우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낮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도 좋습니다. 깨우친 사람들이 많아서 잘 됩니다. 지금 잘 돼서 교회가 12개로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내가 가서 집회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깨우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우쳐도 나라가 깨우치지 않으면 방법을 달리해서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다 맡겨놔는데 변함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나라 사람에게 다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도 ‘베들레헬아 너는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사람 중에 다스리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돼지를 다스리려면 돼지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안 통하니까요. 개미를 다스리려면 개미 중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통역을 잘 하고 충성심이 있어도 그 나라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은 안 배워도 그냥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미국 사람이 처음 들어와 선교할 때 결국 말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말기고 가니까 잘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직접 할 때보다 더 잘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도 이렇게 해나가십시오.

외국에 있을 때 사람들 만나면 말세가 되면 세상이 망한다.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없다고 말세는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안 받아 들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또 가을이 오고 계속 그렇게 새롭게 가는 세계를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건전하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개 선교한다고 외국 나가면 한인교회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교인 중 외국인이 90% 있지 않으면 선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섬리교회는 전부 외국인 아닙니까? 일본도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다 가지고 합니다. 내가 맡겨놔더니 일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하나 제대로 깨닫고 그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항상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맡겨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복덕방주인처럼 죽어도 안 비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10년 만에 들어왔는데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맡기면 안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6,7살 짜리에게 일하라고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밀어붙여서 잘 하십시오. 앞으로 선교지원을 전략적으로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돈은 많이 보내도 환율 때문에 많지 않으니 그 나라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그 나라 사람이 운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운영하고, 각 개인이 운영하라고 교단에서 돈 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니까 확 불어난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골고루 잘 세워야 합니다. 맡기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될 때 밀어 붙여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헛 일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경제활동으로 밀어붙여 경제 왕국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30개 교파가 일어났는데 우리 단체 하나만 순전히 신앙만을 제대로 가르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철통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쳐서 못하면 안 됩니다. 안 가르쳐서 못하면 교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도 자세히 가르쳐야 합니다.